

고층아파트 대가 기부채납 기준 강화 시급

이명박·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규모·위치 타당성 등 검증 안 돼
광주시, 지방분권 고려해 지역 특성 반영 공정한 지침 마련키로

임야, 전답, 학교부지 등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관련 지침 개정과 지역 내에서의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국토부 지침에 사업자의 기부채납 총량을 정해두는 것 이외에 개발 이익 산정, 기부채납 규모 및 위치의 타당성 검토, 논의 과정 공개 등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증이나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8년 제1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부산산업개발 대표가 주민제안방식으로 내놓은 하남산업지역 동측 일원(무진로 북측)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1500㎡의 어린이공원, 9639㎡의 미집행 도로 편입 및 도로 추가 등을 조건으로 폐지된 학교부지 1만871㎡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다. 위원회는 여기에 아파트 높이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3층 이하로 8개층을 더 높일 수 있게 해줬다.

이 지역은 하남2중학교 부지였으나 지난 2014년 취학아동 부족으로 설립 계획

이 취소되면서 방치됐다.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부산산업개발 대표가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접수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쳤다.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안에는 공원이 없었고, 도로 편입 면적도 3903㎡에 불과했으나 시가 이를 요구, 최종결정과정에서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부채납 규모나 위치가 개발이익에 비해 미흡하고, 해당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센티브로 '높은 층수'를 쟁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 자산인 '고층 개발권한'을 별다른 기준 없이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현재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국토부가 정해놓은 총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를 설득해 공원 조성 등을 포함 시키고, 공원 역시 주변 아파트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창올림픽 D-3 '휴전벽' 평화의 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 등장한 휴전벽에 자원봉사자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글을 쓰고 있다. 휴전벽은 대회 기간 인류가 전쟁을 멈추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휴전 정신을 구체화하고자 2006 토리노 올림픽부터 선수촌에 설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박승선 기자

광주일보

광주에 수돗물 없는 마을 24곳 ▶6면

아이가 꿈-저출산의 첫 청년실업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호남·충청·강원 ‘강호축’ 국가 개발 중심축 삼아야”

8개 시·도 공동 토론회

호남과 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江湖軸)을 국가 개발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맥이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충청~강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2면>

5일 호남·충청·강원의 8개 시·도가 이들 지역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촉구했다. 이들 시·도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호축 공동 토론회’를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충청~강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택수 대전시 정무부시장, 이시중 충북지사, 김택수 대전시 정무부지사,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승일 행정부지사 등 8개 지역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박병석(대전 서구갑)의원, 자유한국당 서일종(충남 서산·태안) 의

원, 민주평화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 등 이들 지역 국회의원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중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 8명이 사전에 서명한 ‘강호축의제 국가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됐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교통·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를 경부축에 편중시켰던 국가 발전 전략이 자원의 비효율,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 혁신 벨트 조성 ▲백두대간 관광 생태 벨트 조성 ▲강원~충청~호남 간선교통망(국가 X축 교통망) 등 강호축 공동발전 사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재용 항소심서 집유 4년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인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관련기사 14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과 장충기 전 미전장 지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재단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연합뉴스

북 예술단 선발대 방남...본진은 오늘 만경봉호로 이동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예술단의 강릉-서울 공연에 앞서 선발대가 5일 방남했다. <관련기사 3·5·20면>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이날 오전 11시 28분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밟고 오후 1시 17분께 입경했다.

김 행정부단장은 남측 지역에서 공연하게 된 소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공연 준비를 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연에 우리측 노래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북측이 통보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노래를 준비했느냐고 묻자 “공연을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김 행정부단장과 안 감독은 지난달 15일 남북 예술단 실무접촉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과 함께 대표로 나왔던 인물로, 지난달 21~22일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때도 동행했다. 북한 예술단 선발대는 곧장 숙소인 인제 스피디움으로 이동해 여장을 풀 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에 공연할 강릉아트센터로 찾아 무대설치 등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8일 오후 8시 강릉아트센터,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각 공연할 예정이다. 예술단 본진은 6일 방남하며 북측은 만경봉호로 이동하겠다고 남측에 알려졌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선물 뭐가 좋을까...
www.hnmiso.com

해남군청 직영 땅끝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061-537-1472(일사천리) | 080-859-1100(무료)
www.해남미소.한국 | www.hnmiso.com

